

도서관활용은 미래산업

— 체험을 통한 교수방식과 다원적 연습 및 교재 데이터베이스 협동개발을 제의하면서 —

김 중 한

<인디애나주립대학교 교수>

목 적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산업의 세계적인 경쟁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선의 일꾼들을 학교나 직장에서 항상 재교육, 재훈련을 시켜서 모두 책임있는 고급 기술전문가로 양성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일을 현재의 학교교육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개발되어야만 하겠다. 그러한 방법의 하나가 도서관의 활용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은 앞으로 협동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개발해야 함으로 여기에서는 기본원칙과 이념만을 밝혀 두고자 한다.

도서관 전문사서직의 변신

종래의 도서관은 시설과 자료가 먼저 있고 그것을 관리할 필요성에서 도서관사서직이 탄생된 것이다. 사서직의 명칭은 자주 바뀌었으나, 사서직의 근본기능은 구태의연하게 서고를 지키며 관리하는 말단행정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가 바라보는 도서관사서직의 가치도 만족스럽지가 못하다. 그러나 이런 사서직에게 국민개학의 재교육을 담당하는 크나큰 사명을 주고 사회에 실질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지식전문직으로 발전시켜 21세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렇게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시설과 운영에 활용되는 자원을 크게 확장하기 이전에 사서직의 성격이 변화하여야하며 또한 이렇게함으로써 사서직의 사회적 공헌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가르치는 직책의 분업화

옛날에는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하나의 직종이었으며 중세기때는 이발사가 외과의사를 겸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의 의술에 종사하는 전문직종이 수십가지가 된다. 예를들면 보건의술분야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분야에서도 분업이 합리적으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히 학교교육부문에서는 아직도 옛날 서당식과 마찬가지로 한교실, 한사람의 교사, 교과서 암기위주의 방식을 그대로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교과서 암기만을 위주로 하는 서당식 학교교육을 다기다양하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21세기의 세계경쟁상태에서 예기치못할 상황변화에 적응하고 독자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라는 큰과제를 놓고 몇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가장 시급하게 하여야할 일은 너무나 빈약하고 현실에서 멀리 떨어진 교과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심한 현상태에서 하루속히 탈피하는 것이다.

교과서는 학업진도의 이정표와 같은 것으로 다시 고쳐 만들고 교과목의 내용은 재미있고 풍부한 자료와 일선교사들이 협동하여 만들고 유지되는 주제별 연습교재 데이터베이스로 대체해야 하겠다.

따라서 출판된 자료의 선정과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하고 유지, 활용을 담당하며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도서관전문직이 필요하게 된다. 도서관은 원래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종래의 행정관료적인 사서직책을 크게 발전시켜 이미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일선교사들과 더불어 사람을 가르치는 직책으로 전환하고 변신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교사와 도서관전문직이 협동하면 교육적인 효과를 최대한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교육적인 효과를 증대시키는데는 다음 네그룹의 협동이 필요하다.

- (1) 학부형
- (2) 학자, 전문가, 작가
- (3) 교사, 지도자, 도서관전문직
- (4) 배우는 당사자

위의 네그룹사람들이 협동하는데는 연습교재가 필요하다. 이 교재는 네그룹이 협동해서 개발해야 하며 도서관전문직이 교재개발의 선두에 서서 책임을 지고 진행해야 하며 또한 이들과 나름대로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네그룹의 사람들이 자기 어떠한 역할을 하며 또 어떻게 협력하느냐를 순서에 따라 학부형부터 설명하기로 하겠다.

1. 어린학생들의 학부형

(가) 학부형의 역할은 저학년 일수록 많으며 고등학교 졸업을 계기로 점차 적어지거나 혹은 없어지게 된다.

어린이들은 모든것을 부모로부터 배우기때문에 부모는 어린이의 배움의 모형이 된다. 남자어린이들은 아버지로부터, 여자어린이들은 어머니로부터 인간사회, 가치관, 윤리관, 생활양식과 태도를 무의식중에 배우게 된다. 따라서 자식들의 장래는 그들의 부모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무지하고 교양이

없으며 자식들을 공부시킬 줄 모르는 부모를 둔 어린이들이 자라서 크게 성공하는 일은 그리 많지가 않으며 거의 드물다고 하겠다.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기대에 따라 행동하고, 어린이들의 학업성적은 교사를 포함하여 어른들의 기대와 지원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결과를 내용으로한 교육연구보고서가 너무나 많다. 이런 점에 대한 좋은 본보기로서 교육열이 가장 강한 극동의 세나라, 즉 한국, 일본, 대만을 들 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의 곁을 떠나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장생활로 독립하게 되면 부모형제들의 영향이 희박해 지거나 없어지고, 직장이나 학교생활을 하는 동료들과 각과목의 주임교수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이다.

(나) 학부형들의 영향은 교육을 받은 학부형이 어린이들을 보살피면서 직접 국민학교 교과목을 가르치는 경우에 가장 크다고 볼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충실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국민학교 저학년의 여러교과목을 가정에서 직접 어린이들에게 과외보충학습으로 지도할 수 있다. 그러한 보충학습이 어린이의 학업성적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학부형들이 손쉽게 어린이를 지도하기 위한 연습교재가 필요하다. 이 교재의 개발은 학부형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초보적인 산수응용문제의 풀이를 연습시킬때 연습교재를 실제로 집에서 사용하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잘된점과 잘못된점을 찾아내고 이것을 시정하려면 학부형들의 공동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교육학연구는 교육학자들만이 연구하면 현실정과 거리가 먼 왜곡된 방향으로 이끌려 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학부형이 직접 가정학습을 지도하므로서 그들도 학자들과 다름없이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다고 보아야만 한다.

2. 주제전문가 및 작가

주제전문가나 작가는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없이는 인간사회가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만든 새로운 지식을 토대로

하여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기전문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올리고 연구결과를 누구보다도 앞서 발표하여 자기자신의 명성을 높이려고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오래동안 많은 연구와 노력의 결실로 얻은 값진 전문지식을 그렇게 손쉽게 적은 대가로 넘기지는 않는다.

이들이 집필한 교과서가 읽기 어려운 것은 이러한 권위주의적 경향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처음 배우는 초보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모르며 또한 동정심을 갖고 알리려는 노력도 충분하지가 못하다. 그 이유는 수재들이 능력이 부족한 보통사람들을 대할때 갖는 우월감도 있으며 또한 귀찮다는 생각도 갖고 있기때문일 것이다. 처음 배우는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도와주고자 노력하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각급 학교의 교과서를 편찬하는 사람은 학자나 전문가가 아니라 출판사 전속 전문직원들이다.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편찬 제작하는 교과서가 많은 학교에서 채택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다. 다른 출판사들과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과 방식을 기피하고 안전하며 문제가 되지않도록 주제를 빠짐없이 포함하고 색도가 많은 사진, 그림 등을 삽입하여 학생들에게 매력올 갖게 만든다. 또한 교과서의 채택과정은 다분이 정치성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교과서의 가장 큰 결함은 교과서를 개정할 때 학생들에게 실제로 테스트해 보고 그 결과를 참작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일이 전혀 없는데 있으며 또한 최하위수준의 주제학습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것이므로 그것이 학생들이 배우는 주제내용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 있다. 이 한가지 이유만으로도 여기서 제안하는 연습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3. 일선교사들

일선교사들은 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직접적인 책임자이다. 새로운 학습의 교수방식과 교재개발에 가장 관심이 크며 또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많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일선교사들은 교단에

서서 같은 내용의 교재를 가지고 틀에 박힌 수업을 되풀이함으로써 쉽게 수업을 계속할 수가 있다. 많은 학생들의 각기 다른 능력, 개성, 학습수준 등을 파악하고 보살피면서 지도하려면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해진 봉급을 받고 그런 노력을 할 사람은 드물겠지만 새로운 교수방식과 교재가 개발되어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 재미있게 지도하면서 교육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면 아마도 일선교사들은 모두다 환영할 것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이미 개발하여 효과를 많이 얻은 방식으로 교재를 되풀이하여 또다시 개발하는 것이다. 의학의 기술이 많이 발전하는 이유는 의학기술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한 새로운 지식을 한곳에서 독점하지 않고 연구결과를 모든 의사들과 같이 치료에 응용하는데 기인한 것이다.

재래식의 교육연구방식은 일선교사와 연구자가 완전히 분리되어 소위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연구자들의 독점시장에서만 알려지고 일선교사는 주어진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 사용하는 일선교사들이 참여하지 않은 연구결과가 실제로 응용하는데 효과를 얻지못하는 일이 허다하게 많았다.

미국의 예를들면 1960년대 일리노이대학교의 수학교육의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의 수학교육이라고 생각했던 고등대수이론과 개념을 국민학교 산수과정에 도입시켰다. 그 결과로 한세대의 수학교육을 완전히 망쳐버린 일이 있었다. 새로운 교수방식과 연습교재 개발에 일선교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만 한다.

4. 배우는 사람자신들

교육으로서 얻을 수 있는 성과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므로 배우는 사람 자신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배움행위란 있을 수가 없다. 다시말하면 배우는 사람자신의 두뇌가 직접 체험을 통해서만 배우게 되는 것이다.

지식은 책에 기술된 사실을 암기하고 얻는 것이

아니다. 지식이 책에 있고 사실을 많이 알고 있는 것과 혼동하여 동일시 한다면 학교와 교사가 필요하지 않다. 도서관시설과 책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책을 읽고 차운전을 배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한살난 어린이가 책을 읽고 말을 배우는 예가 있는가? 우리들이 어려서 걷기 시작할 때 책을 읽고 걷기를 배웠는가? 지식이란 사진으로 찍힌 사물과 같은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두뇌에 직접 입력시켜 가꾸며 키우는 문제해결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이다.

책을 읽고 배우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토대가 되어 기존지식의 테두리 안에서만 읽은 것이 이해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열심이 읽어도 기존지식 범위를 벗어난 주제를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도서관에 책이 많아도 지식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다. 지식이 깊고 넓을수록 책을 광범위하게 읽게 된다.

예를들면 산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진다. 지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는 말이다. 사람과 사람과의 모든 통신거래는 말로 하고, 사물의 설명도 말로 하고, 사실의 묘사도 말로 한다. 말로한 약속, 설명, 묘사들을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는 매개에 기록하려면 글을 써야한다.

이와같이 글이란 말한 것을 어느 매개체에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글을 읽고 이해하려면 말을 잘할 줄 알아야 한다. 말하기, 글쓰기, 글읽기, 배우기를 예로삼아 교재개발 방식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가) 말이란 직접행동으로서 체험을 해야만 배운다. 또한 말은 수없이 반복 되풀이하면서 연습을 해야만 배운다.

한살난 어린아이는 말하기와 걷기를 가장 먼저 배운다. 말은 대부분 어머니에게서 배운다. 모어(母語)란 말이 여기에서 비로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말을 배울때 말의 뜻과 결과를 행동으로 직접 체험하므로써 완전하게 배우게 된다. 남의 말을 되풀이하여 흉내내는 것으로는 배울수 없다. 행동으로 말을 배우는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 모든것은 배울때 반복하고 연습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가 없다. 모든 생물체는 같은 것을 반복하여 체험하므로써 새로운 것을 배운다. 말하기와

걷기는 수없이 반복연습하여 본능적인 자동기능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말을 할때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해야 한다면 말을 제대로 못한다. 또한 한결씩 발을 내디디는 동작을 생각해야 한다면 제대로 걷지를 못한다. 따라서 행동으로 수없이 되풀이하여 배우는 교재를 만들어야만 하겠다. 이미 다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6년간 배워도 영국인 또는 미국인과 간단한 회화도 하기 어렵다.

(나) 말을 못하면 글도 못쓴다.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지만 말을 영구히 보전할 수 있는 매개체에 기록하려면 글을 써야 한다. 따라서 말을 못하면 글도 못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말을 처음 배울때부터 쓰기 연습을 동시에 해야만 한다. 쓰기연습을 되풀이하게하는 연습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글을 쓴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장힘드는 일이다. 원고지를 앞에 놓고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자 첫장을 쓰는데 머리속에서 수십번 다시쓰게 되고 수십번 다시고쳐쓰게 된다. 글쓰기를 완전히 배웠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다) 말과 글을 못쓰면 글을 읽지도 못한다.

체험과 반복연습의 과정을 거치지않고 다른 사람이 쓴글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는 없다. 따라서 말과 글을 잘못하면 읽지도 못한다. 읽고 해석하고 문법에만 치중한 우리 나라의 중고등학교 영어 학습이 헛된것임을 학생들 자신도 알고 있으며 실증을 느끼고 있다. 교실에서 강의를 듣고 교과서를 암기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배우고 학교공부를 마칠 수는 없다.

결론

새로운 교수방식과 연습교재 및 연습시설이 절대 필요하다. 특히 일선교사들 중에서 경험이 많고 자유재량권이 있는 원로급 교사들이 연습교재를 많이 요구한다. 수학교사는 연습문제가 많이 실려있는 이미 절판된 낡은 교과서들을 진요하게 사용한다. 그러한 연습문제들을 수집, 편성하고 보관하여 모든 교사, 학생들이 활용하게 하는 도서관 전문적이 필

요하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쓴 독후감을 모아놓은 책들이 있다. 특히 마을문고본부에 비치된 것을 보았다. 그것을 사무실에 보관만하여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각 문고마다, 각급 학교도서관에 복본을 비치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해야만 한다. 책읽기에서 글쓰기로 옮겨가도록 해야 하겠다. 글을 쓰려면 소재가 필요하고 사전같은 참고도서도 필요하고, 아이디어가 있어야하고, 좋은 본보기의 자료가 필요하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해결 방안을 탐색하는데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도서관은 책읽은 장소라고 강조하는 도서관 사서들의 인식부족부터

시정해야겠다.

교실은 강의를 들으며 다른 생각을 하고 공상을 하는 곳이 아니고 교사가 학생들의 연습활동을 시키고 지도하는 곳이라고 보면 교사들의 일도 손쉽게 되고 학생들도 학습활동에 전념하여 지루한 것을 모르고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은 모든 학습연습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비치되고 연습활동에 필요한 기구가 비치되어 있는 연습활동의 센터이며, 글쓰기 랩(Writing Lab)의 역할을 하게되고 도서관 전문직은 학습연습자료 데이터베이스 형성과 활용에 앞장서야하고 관리의 책임을 맡아야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 일은 많은 사람의 참여와 협동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原 稿 募 集

<도서관문화>誌는 700여 단체회원과 1,300여 개인회원의 대변지로서 보다 알차고 유익하게 꾸미고자 회원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내용 : 가) 도서관학 및 정보기술의 학술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
나) 도서관계의 국내외소식, 회원人事소식
다) 도서관과 관계되는 수필 또는 수기
라) 기타

2. 보내실곳 : 1137-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산60-1

전화 : 535-4868 · 5616

3. 기타 : 가) 원고를 보내실 때 약력과 사진 1매(“도서관문화”자료실 영구비치용)를 첨부바랍니다.
나)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稿料를 드립니다.

圖書館文化 편집실